제18편
제3신앙촌 시대(제5부)
一. 신앙촌과 전도관의 끝마무리 작업 시작
1) 전국 전도관을 팔기 시작함
2) 회사명칭을 시온(ZION)에서 삼광(三光)으로 바꿈
3) 돌연 구판부를 만듦
4) 영모님은 고리대금업자?
5) 온천지가 불바다가 된다!

제18편 - 제3신앙촌시대〈제5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69회)

一. 신앙촌과 전도관의 끝마무리 작업 시작

4)영모님은 고리대금업자(高利貸金業者)?

이런 영모님의 모습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영모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양반이라고 서슴지 않고 매도를 하였다. 이 내용을 읽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는 독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영모님의 고리대금도 쇼(show)인가? “내가 지금까지 쇼를 하면서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쇼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81.12.28 축복일)”라고 하셨다. 성경에 “이 두 선지자 감람나무가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고로 세상에 거하는 자가 그것을(그 분의 죽음) 본즉 즐겁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묵 11:10)”라는 기록이 있다. 사실 신앙을 떠나서 영모님을 바라보면 정말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말이 맞는 말일 것이다. 이런 쇼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구세주가 출현하신 후에는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당신을 따른다는 무리들을 마음대로 손에 넣고 가지고 노셨다. 그리고 당신이 키운 완성자 구세주가 출현하시어 역사를 시작하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내용들을 말씀으로 암시도 하셨다.

영모님은 고리대금업을 쇼처럼 하셨지만 사실은 많은 자금을 일부러 끌어 모으시기 위함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끌어들이신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사리사욕을 위함은 절대 아니었다.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신 것도 분명 아니었다. 앞에서도 잠깐 밝힌 바 있지만 영모님은 신앙촌의 모든 재산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그 증거로는 셋째 박윤명 사장에게 전권을 맡겨주시고 첫째 둘째에게는 일체 신앙촌 일에 관여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해놓아 버렸다. 그래서 박윤명이외에는 일체 관여를 못함으로 다른 자녀들의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모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재산이 종교법인, 학교법인, 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었다. 그외에 현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영모님이 고리대금업에까지 손을 대신 것은 분명 아무도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영모님은 분명 고리대금업을 하면서까지 끌어들인 재원을 승리제단을 세우는 구세주에게 보내 “사막(소사)에서 구세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분 영모님은 별의별 흉악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구세주를 위한 일에 총력을 쏟았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마무리를 지을 때 좀더 구체적인 말을 하려고 한다.

영모님은 분명 고리대금업을 하셨다. 그것도 영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소비조합원을 통해서 고리대금업을 하신 것이다. 영모님은 하늘의 뜻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마귀 세상에 도전하셨던 것이다.

5) 온천지가 불바다가 된다!

이때는 1980년경이었다. 1980년 4월경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래산과 노고산의 사이에 위치한 밀실(密室)이라는 곳과 영모님이 계시는 기장 신앙촌의 이 두 장소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여 과연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

이 내용은 이미 밀실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점만 적기로 한다. 지금은 이 시점에 일어난 기록을 하는 때이므로 요점을 적어 알리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요점:

1) 1980년 4월경 영모님은 기장신앙촌에서 느닷없이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된다”고 호통을 치시고 서울로 가신 후 아무도 영모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2) 이 시점은 밀실에서 예정된 구세주이신 조희성님이 낙심하여 목을 매 죽으려고 한 시점이다.

3) 이북에서는 전투기 500대가 남침을 위하여 떴다. 명령만 기다리는 아슬아슬한 시점이었다. 이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 온다면 세계대전으로 발전되어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된다는 말씀은 그대로 될 판이었다.

4) 일주일 후 신앙촌 특판부에 서울 7중앙 관장인 한형만 관장이 와서 피아노 구입 상담을 하고 있을 때였다. 전화가 와서 받으니 조철구의 전화였다. 한 관장을 바꿔주니 조철구는 영모님이 7중앙에 오셨다고 전한다.

5) 일주일 동안 행방을 감추었다가 7중앙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신 영모님의 모습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영모님은 평소에 관장들의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절대 그냥 보아 넘기지 않던 분이다. 그때 영모님은 영업용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조철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6) 기장신앙촌에 급히 연락을 하였다. 사모님과 자제들, 그리고 안내원들이 달려왔다.

7) 영모님은 절대로 기장신앙촌에 안 가겠다고 버티셨다. 몇 시간을 실랑이를 하다가 강제로 영모님을 모셔갔다.

8) 영모님은 전세계 마귀가 총집결되어 있고, 생수 먹은 신앙촌 식구들에게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가서 영모님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영모님을 죽이려고 영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기장신앙촌에 가려고 하실 리가 없는 것이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영모님이 행방을 감추신 동안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신 것일까? 영모님은 모 호텔에 머무르면서 계속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사경을 헤메시며 사투를 벌이셨다고 한다.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위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예정된 구세주 조희성님이 ‘좋아하는 음란죄’에 떨어져 낙심을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시점이다. 예정된 구세주는 하나님이 6000 년간 공을 들여서 출현시키시는 분이다. 이분의 출현이 실패로 끝이 날 경우 하나님도 멸망인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이긴자가 안 나오면 나도 끝장이야, 나도 지옥이야!” 하시면서 단에서 우셨던 것이 바로 이런 조건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예정 속에서 키우는 조희성님이 낙심하여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온 세계에 불바다가 될 징조가 나타나니 영모님은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된다”고 일갈을 하시고 이를 막으려고 피를 대야로 쏟으면서 사투를 벌이신 것이다. 영모님은 죽으려고 하는 예정된 구세주 조희성님에게로 영적으로 가시어 조희성님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참고 성급하게 구느냐’라고 하면서 조희성님을 붙잡고 통곡을 하니 조희성님도 같이 울면서 “영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이 경솔하게 굴지 않겠습니다”라고 서로 붙잡고 통곡을 하셨다.

이와같이 영모님께서 인류의 구세주 예정자의 마음을 정상으로 돌려 놓으니 온 천지가 불바다로 화할 뻔한 징조는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성공을 거두신 후 영모님은 피곤하실 대로 피곤한 초라한 모습으로 서울 7중앙으로 오신 것이다.

이후 마음을 다시 잡으신 예정된 구세주이신 조희성님은 6개월 동안 생명을 내건 투쟁을 하신 끝에 1980년 10월 15일 완성자 구세주로 출현을 하게 되신다. 이 분이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이러한 엄청난 일이 필자가 신앙촌 특판부 활동을 할 시점인 1980년에 일어난 일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66회

정도령과 그 출현의 때를 알아야 살지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을시구절시구(乙矢口節矢口)의 뜻-

嘲笑歌 조소가

七星依側彼人天佑神助
칠성의측피인천우신조
人我嘲笑而稱受福萬인아조소이칭수복
嘲笑而不俱虛妄修道人
조소이불구허망수도인
勿慮世俗何望生물려세속하망생
天通地通糞通천통지통분통
所經不謁盲朗道通소경불알맹랑도통
知覺我人糞通知覺道人也
지각아인분통지각도인야
無聲無臭無現跡무성무취무현적
何理見而狂信徒하리견이광신도
愚者信去天堂人우자신거천당인
今時滿員不入矣금시만원불입의
終身愚人地獄종신우인지옥
不信智人飛上天불신지인비상천

북두칠성(생명을 주관하는 신) 곁에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우(保佑)하심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꼬며 조소하기를 복 많이 받겠네 하리라.

병신같은 허망한 수도인(修道人)이라 하면서 비웃느니라.

사람들이여, 세속의 일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 그래가지고서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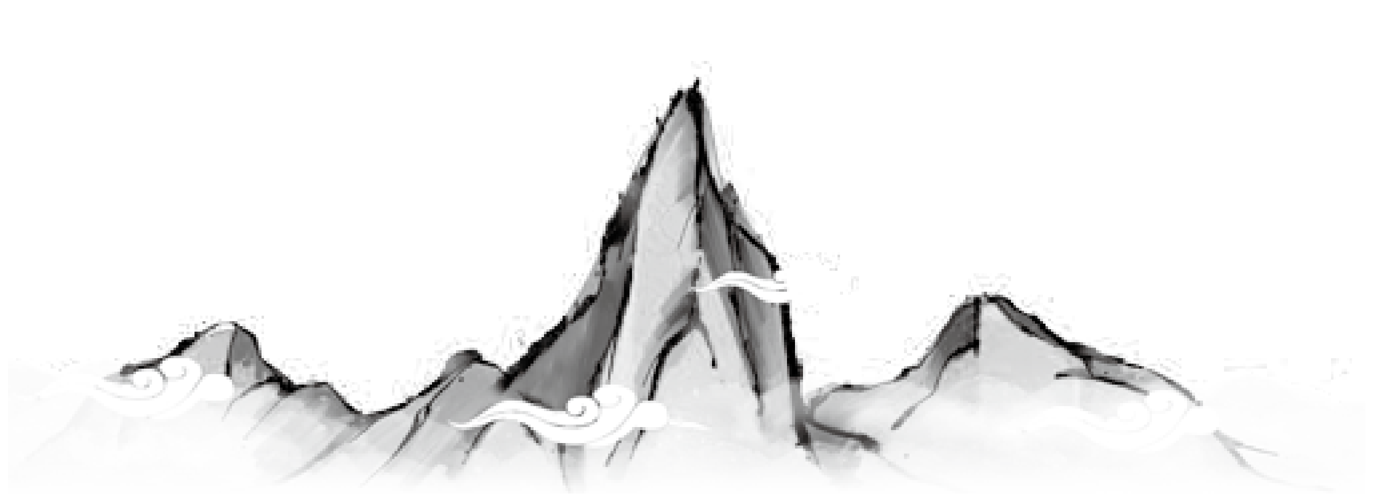
천문(天文)에 통하고 지리(地理)에 통했다고 큰소리쳐도 똥통밖에 안 되나니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듯이 경전(經典)을 읽어도 참뜻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맹랑한 도통이니라.

나 자신과 사람들이 다 똥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참된 도인이니라.

소리도 냄새도 자취도 없는 하나님을 어떤 이치로 보았다고 하는지 그렇게 믿는 자를 광신도(狂信徒)라 하느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를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데 천당은 지금 만원(滿員)이라 들어갈 수가 없나니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사람이 갈 곳은 지옥 밖에는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지 않느니라.



絶嗜禁欲无慈味 절기금욕무자미
草露人生可憐 초로인생가련
自古歷代詳見 자고역대상견
人間七十古來稀 칠십고래희
好遊歲月此今世 호유세월차금세
酒肆廳樓不離 주사청루불리
昨日人生今日死 작일인생금일사
今日人生來日死 금일인생래일사
場出入智人便所出入 장출입지인변소출입
道人不顧家事狂夫女 불고가사광부녀
一日三食何處生 일일삼식하처생
彼笑我我彼笑 피소아아피소
終結勝利誰人言 종결승리수인언고
恒時發言天堂 항시발언천당
我智覺知地獄 아지각지지옥
一平之修道人 일평지수도인
北邙山川不免時來 북망산천불면시래
心靈我人運去 심령아인운거
智短端彼人 지단단피인
乙矢口節矢口 을시구절시구
不遊好日何望生 불유호일하망생

즐기던 기호(嗜好)도 끊고 금욕(禁慾)을 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는데 풀잎의 이슬 같은 초로인생(草露人生) 가련하도다.

고금(古今)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인간이 칠십까지 살았던 일이 드물지 않았느냐?

지금은 놀기 좋은 세월이라 세상에서 술파는 기생집을 떠나지 않는구나.

어제의 인생이 오늘 죽고 오늘의 인생이 내일 죽으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며 진탕만탕 마시며 노는 자들아 이런 술집에 출입하는 지식인은 변소(便所) 출입하는 도인(道人)과 같으니라.

그런 술집을 드나드는 도인과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그릇된 종교에 빠져 미친 사내와 여자는 하루 세끼를 먹어도 감로해인(甘露海印)을 모르니 나중에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들은 나를 비웃고 나는 그들을 비웃나니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라고 말할 것인가?

천당을 내가 깨달아 알고 지옥을 안다고 항상 말하는 일평생 수도한 사람도 북망산천(北邙山川)을 면하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마음속 생명이 되는 영을 마귀(나라는 의식)가 삼켜 버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짧은 저 사람들은 을시구(乙矢口) 절시구(節矢口) 이 좋은 세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하니 무슨 수로 영생(永生)의 희망을 바라겠는가?

을시구(乙矢口)는 궁궁을을(弓弓乙乙 = 백십승=정도령)을 알아야 하며 절시구(節矢口)는 때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백십승(白十勝)도 모르고 언제 출현하는 그 때도 모르고 놀다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시구(矢口)는 지(知)자를 풀어 쓴 것이며 절(節)은 철 또는 절기(節氣)를 말한다.*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